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이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이재봉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of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nflict

Jae-Bong Lee¹, Jina Paik^{2*}

¹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이 기혼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부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F) 7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남편과 미혼 성인자녀 둔 기혼여성 1,076명을 추출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부갈등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은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우울감 사이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낮추고 부부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기혼여성,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 우울감, 부부갈등, 여성가족패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burden of support for unmarried adult children on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nflict in the process. To this end, 1,076 married women with baby boomer husbands and unmarried adult children were extracted based on the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Women and Family Panel (KLoWF) and analyzed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burden of supporting unmarried adult childr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and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couple conflict. Second, it was found that couple confli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Third, couple conflict was found to play a role as a partial mediator between the burden of supporting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the feeling of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e various programs to resolve couple conflicts and decrease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Key Words : Married Women,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Depression, Couple Conflict,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1. 서론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삶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중년 여성의 우울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세계 23개국 '시그나 360°웰빙지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97%로 평균 86%를 보인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를 발생시키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November 22,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16,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는 주요 원인은 일(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돈 문제(33%), 가족(13%) 순으로 나타났다[1]. 특히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이나 기혼남성에 비해 우울에 훨씬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3]. 주부의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스트레스가 기혼여성의 우울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긴장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4].

기혼 중년여성의 경우, 삶의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와 가족 내 역할의 변화로 인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아직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지속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일-가족 병행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발되는 내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긴장감으로 인한 부양 부담감이 가족 내에서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6]. 특히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감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부양부담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취업 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기계약직 등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71.7%)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청년(19~34세)' 비율인 56.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절반 가까운 45.8%가 '부모님에게서 지원받는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청년이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퇴한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위해 구직에 나서면서 가난이 부모에서 자녀로,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 자녀수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7]. 또한 취업은 했지만 경제적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함과 동시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8]. 성인자녀에 대해 계속되는 경제적 부양과 정서적 지원의 부담으로 인해 중년의 기혼여성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에 따른 가족역할 혹은 부모부담의 강화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심리적인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자녀부양에 따른 압박감과 중장년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 부족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막중한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8]. 특히 중년여성의 우울감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거나 자신만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노년기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가족구성원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머니가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 학대나 폭언과 같이 자녀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원활한 가족소통과 친밀한 관계 부재 등의 가족체계내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9].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혼의 성인자녀들은 산업성장의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낮은 취업률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현상 등[10]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모의 부양 스트레스는 부부간 소통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만들어 기혼 중년여성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의 주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여성들은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 등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양대상으로서의 미혼 성인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과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우울감은 기혼 남성이나, 미혼의 남성 및 여성보다도 매우 심각하며, 자신과 자녀, 배우자 등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1-14]. 또한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주요 행위자로서 중년 기혼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는 향후 심각한 노인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15].

한편,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부양부담감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다르게 성인자녀에게 기대했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좌절감과 희망 없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유발하거나[8] 가정폭력으로 심화될 수 있다. 반면에 성인자녀가 취업을 하고 결혼하거나 독립을 하게

되면, 기혼여성은 자녀부양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중압감으로 인해 여성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가족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감은 부부간의 이해의 폭을 감소시키고, 늘어난 부양 기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부부간에 부정적인 언어, 폭력, 갈등과 혼란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부부간의 갈등을 촉발하여 상호 간의 부정적인 정서, 생각, 감정, 느낌 등을 통해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들[17,18]에서도 자녀 돌봄 부담감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및 상대의 적대적 반응은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에서 받는 부담감이 존재하더라도 상호간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며 친밀한 부부관계를 지속할수록 기혼여성의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9,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은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의 부양으로 인해 받는 부담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이 부부갈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에 집중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과 우울감의 관계,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부부갈등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부부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증재효과를 분석한 연구[21]에서도 부부갈등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가족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중년 여성은 상실감, 위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가족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기혼 중년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속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상처의 경험을 통해 불안, 분노,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축적함으로써 개인의 정서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관계를 포함한 생활스트레스[6,22,23], 사회적 지지[24,25], 자아존중

감[6,12], 부부의사소통[8], 부부친밀감[20], 부부갈등[21,26,27]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우울감과 관련하여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성역할태도, 양육스트레스 등에 주목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28-30].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자녀부양 부담감의 문제를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연결시켜 여성의 우울감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을 가족변화의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여성의 우울감, 그리고 부부갈등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혼의 성인자녀에 부양부담감이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갈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미혼 성인자녀에 관한 부양부담감이 베이비부머 남편을 둔 기혼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부갈등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 설계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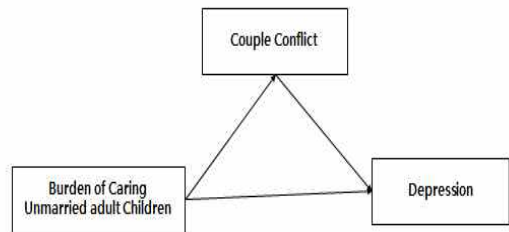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

가족패널 조사는 만19세 이상부터 만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족실태와 부부관계, 경제활동 및 자녀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은 2차 자료로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표본을 선정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근 급증하는 청년실업과 부모의존형 가족형태의 증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우선 미혼 성인자녀와 베이비부머 남편을 둔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대상자 1,076명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종속변수인 기혼여성의 우울감, 그리고 매개변수인 부부갈등 척도는 모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각 변수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2.3.1 독립변수: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은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정서적인 내용들을 의존함에 따라 이러한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부양스트레스와 부양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의미한다[31].

성인자녀 부양부담감 척도의 설문은 '자녀(들)의 학교나 진학문제',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 '자녀(들)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문제' 등을 포함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0.4보다 낮게 나온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와 '자녀(들)의 이성친구나 결혼문제'의 2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이 분석에 적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걱정하는 편이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16으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 상호간에 부족한 자원 또는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할 시 겪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척도의 설문은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짐', '격렬하게 논쟁하거

나 소리를 지름', '배우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눔'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타당도의 요인부하량이 0.4 미만인 '배우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눔'과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힘'의 2문항을 제외한 총 3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정말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부부갈등 척도의 모두 문항이 역방향으로 이루어져 역변환 후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88로 나타났다.

2.3.3 종속변수: 우울감

우울감이란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 의욕상실, 두려움, 외로움과 무력감 등을 나타내는 감정과 정서상의 장애 상태를 뜻한다[8]. 우울감의 질문 문항은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짐', '잠을 자 이루지 못함',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음'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타당도가 0.4 이하인 '비교적 잘 지냈음'과 '큰 불만 없이 생활했음'의 2문항을 제외한 총 8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두 역방향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역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18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 및 Amos 21.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통계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성의 우울감과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 부부갈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과 부부갈등, 여성의 우울감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의 빈도(명)와 퍼센트(%)는 결측치를 뺀 유효 퍼센트를 사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076)

Classification	N	%	
Age	under 50 years	169	15.7
	50 years~54 years	521	48.4
	more than 55 years	376	35.9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65	6.0
	middle school	166	15.4
	below high school	598	55.6
	college	76	7.1
	university	171	15.9
Health status	very well be	44	4.1
	well the	504	46.8
	general	427	39.7
	little bad	88	8.2
	be very bad	13	1.2
Economic support of adult children	yes	540	50.5
	no	530	49.5
Number of unmarried adult children	1	352	32.7
	2	634	58.9
	more than 3 children	90	8.4
Job	yes	673	62.5
	no	403	37.5

먼저 기혼여성의 연령은 '50세~54세'인 경우가 48.4%(52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5세 이상'의 경우는 35.9%(376명), '50세 미만'이 15.7%(169명)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의 경우, '초졸 이하' 65명(6.0%), '중졸이하' 15.4%(166명), '고졸'이 55.6%(598명)로 절반을 차지하며, '전문대졸 이상'이 7.1%(76명)이고 '대졸 이상'은 171명(15.9%)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재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1.2%(13명), '조금 나쁜 편이다' 8.2%(88명), '보통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9.7%(427명),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46.8%(50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좋다'는 4.1%(44명)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50.5%(540명)이고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49.5%(530명)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62.5%(673명)가 취업, 37.5%(403명)는 미취업 상태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혼 성인 자녀수의 경우, 60.9%(357명)가 2명의 자녀, 29.7%(174명)가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3명 이상 자녀'는 9.4%(55명)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과 부부갈등 및 우울감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먼저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 값은 2.241(sd=.580)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1.00	4.00	2.241	.580	.223	.538
Couple conflict	1.00	4.00	1.424	.460	1.197	1.584
Depression	1.00	3.89	1.342	.461	1.826	3.924

매개변수인 부부갈등은 1.424(sd=.460)의 평균값,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1.342(sd=.461)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응답이 가능한 범위의 최대점수는 4이고 이를 중앙값 2.5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대상자인 기혼 여성들이 미혼 성인자녀에 대해 갖는 부양부담감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우울감의 평균값은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통계량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부부갈등 및 우울감 간 상관행렬은 Table 3과 같다. 주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감은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r=.251, p<.01) 및 부부갈등(r=.23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부갈등 역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r=.096,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Couple conflict	Depression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1		
Couple conflict	.096**	1	
Depression	.251**	.230**	1

**p<.01

3.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4.1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이 종속변수인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갈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초기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916.614$, $df=101$, $p=.000$, $SRMR=.048$, $NFI=.888$, $TLI=.880$, $GFI=.897$, $AGFI=.862$, $CFI=.899$, $RMSEA=.087$ 의 값을 보여주어 NFI, TLI, GFI, AGFI, CFI, CFI 값이 .90 보다 조금 낮고 RMSEA 값도 .080보다 높아 기준치에 부적합하게 나왔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I)가 높은 e2와 e6, e14와 e15의 공분산을 그어 모형을 재구성하여 수정모형을 탐색하였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440.788$, $df=99$, $p=.000$, $SRMR=.039$, $NFI=.946$, $TLI=.949$, $GFI=.949$, $AGFI=.930$, $CFI=.958$, $RMSEA=.057$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두 값이 향상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χ^2	df	p	SRMR	NFI
Initial model	916.614	101	.000	.048	.888
Modified model	440.788	99	.000	.039	.946
Index	TLI	GFI	AGFI	CFI	RMSEA
Early model	.880	.897	.862	.899	.087
Modified model	.949	.949	.930	.958	.057

3.4.2 구조모형 분석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지수가 만족할만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도 변인 간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정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와 동일하여 적정수준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eta=.190$, $t=4.005$, $p=.000$). 중년의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의 압박감을 많이 받게 되면 배우자와의 원만하지 못한 상호소통이나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213$, $t=5.818$, $p=.000$). 성년이 된 자녀의 부양이 힘들게 느껴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불안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우울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부갈등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309$, $t=6.284$, $p=.000$). 부부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친밀한 관계가 악화될수록 여성은 외로움이나 두려움의 정서적 어려움에 휩싸이고 집중력은 낮아지며 우울감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E.	C.R.
Couple conflict	<-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146**	.190	.036	4.005
Depression	<-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244**	.213	.042	5.818
Depression	<- Couple conflict	.459**	.309	.073	6.284

*p<.05, **p<.01, ***p<.001

종합해보면,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클수록 부부갈등이 격화되고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감의 정도도 높아지며,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우울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결과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Fig. 2와 같다.

4.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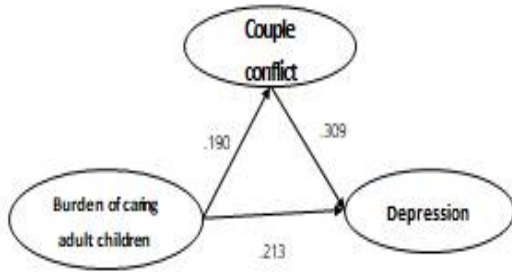


Fig. 2. Research Result Model

3.4.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구조모형을 통해서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은 부부갈등에 직접효과($\beta=.190$)가 있으며, 부부갈등은 여성의 우울감에 직접효과($\beta=.309$)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직접효과($\beta=.213$)가 나타났으며, 간접효과($\beta=.059$, $p<.001$) 및 총효과($\beta=.272$)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기혼여성의 우울감 간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기혼여성의 우울감 간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분석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Couple conflict	.190*	.190*	
Couple conflict	→	Depression	.309*	.309*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Couple conflict → Depression	.272**	.213*	.059**

* $p<.05$, ** $p<.01$, *** $p<.001$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높은 부양부담감은 부부관계를 악화시켜 갈등을 증가시키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190$, $t=4.005$, $p=.000$). 이는 기혼여성이 자녀 부양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으면 부부간 갈등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32]와 유사하다.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 부양에 집중하는 경우,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혼여성이 미혼인 성인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beta=.213$, $t=5.818$, $p=.000$).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33]와 특히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활스트레스임을 밝힌 선행연구[34]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이 자녀 부양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우울이 점점 높아지거나[35], 취업 기혼 여성이 미혼인 성인자녀를 돌보는데 부담감이 높아지면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8,15]와도 일치한다.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기혼여성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할수록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우울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우울감이 심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기혼여성이 느끼는 우울감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09$, $t=5.818$, $p=.000$), 부부갈등은 또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기혼 여성의 우울감 사이에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에 따라 기혼여성의 우울을 분석한 연구[36] 및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37]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의 심화가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38-41]에서도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것

과 같이 부부갈등은 스트레스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영향에 있어 내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피해 기혼여성의 우울감 유발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Carlson 외의 연구결과[42]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부양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론 등에 있어 부부간의 이견과 대립을 노출시키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분노나 좌절, 마음의 상처 등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자녀부양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으로 인한 부부간의 반목과 소통 부재가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감소와 우울감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풀이된다.

본 연구는 미혼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기혼 중년 여성의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부양부담감과 우울감 사이에 부부갈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함의와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개별 가정의 자녀부양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산업정책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계한 대학교육과 대학 내 진로 및 직업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미혼 성인자녀들의 인성을 담당하고 독립적인 주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은 부부갈등을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원만한 부부관계의 형성과 가족갈등의 해소를 위해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을 낮추고 미혼 성인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인턴제 확대 및 미래의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 성인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적으로 주택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체제가 강고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돌봄을 대행하고 있는 보육공공성의 확보와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 청년들의 가족 형성과 유지를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이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우세하던 중년 여성의 배우자세대에서 상당수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도구적 역할만 담당하며, 자녀 및 배우자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자녀의 정서함양이나 교우관계 및 진학 등에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은 주로 여성들이 전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며 상호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갈등의 주된 내용인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낮추어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역할극, 부부교육(치료),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이 지역사회와 학교, 종교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이 널리 보급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호작용 강화프로그램, 가족 생활교육 강화프로그램, 노후 준비에 관한 플랜 세우기 등을 실시하여 부부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부 간에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전달하고, 긍정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교육 및 부부 성관련 교육 등이 정부와 교육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부의 신체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기혼여성의 가족적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의 또 다른 요인인 물리적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분노조절 상담과 부부 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교육을 널리 보급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갈등의 해결점은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 폭력금지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간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과 자녀

부양은 부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교육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텃밭가꾸기, 식물기르기, 농장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과 사회와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부양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기혼여성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존중대화법, 대화스킬법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부부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하고 다양한 부부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담당 전문가 등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배우자의 퇴직에 따라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혼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감이 중년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지연으로 야기되는 우울감에 대한 부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족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전국 규모의 여성패널 7차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조사 설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질문지의 구성이 연구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연구방향이 이미 설정된 조사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의 문항이 5개로 이루어져 다양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기혼여성의 우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심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여성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 자녀의 취업 여부가 기혼여성의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 성인자녀를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으로 나누어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 성인자녀의 대학졸업 여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과 졸업 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자녀를 취업과 미취업, 대학졸업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사시점과 분석시점이 다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 사회상을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혼 성인자녀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의 관계와 관련하여 성에 따른 집단별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분석하고, 개별적으로 보호요인과 매개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울감이 내재되어 있는 중년부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is revis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Jae-Bong Lee(2018).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7). *Annual Report of the Cause of Death*. <http://www.kostat.go.kr/>
- [2] S. C. Hong et al. (2014).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5(2), 79-84
- [3] J. S. Kim & K. R. Shin. (2004).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ult Women. *Journal of Academy of Nursing*, 34(2), 352-361.
- [4] S. H. Choi.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Depression of Married Wom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5] E. Y. Kim, E. Y. Jung & I. R. Choi. (2013).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Who Participated in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The Korea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 11-19.
- [6] D. M. Kim. (2014). Event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Full Time Housewives. *Korean Education Inquiry*, 32(2), 113-131.
- [7] Daenews. (2018).

- http://www.daenews.co.kr/news/view.php?no=11432
- [8] O. S. Cho & J. A. Paik. (2018). The Effect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of Employ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93-303.
DOI : 10.22156/CS4SMB.2018.8.6.293
- [9] E. M. Yeon, H. O. Yoo & H. S. Choi. (2015).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Using Autoag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 1-29.
- [10] The Seoul Institute. (2014). <https://www.si.re.kr/>
- [11] J. Y. Lee & M. K. Jang. (2008).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Rol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39-352.
- [12] S. K. Kahng & T. Y. Kwon.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ve Symptoms Across Lifespa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332-355.
DOI : 10.15703/kjc.9.2.200806.339
- [13] E. J. Choi & C. K. Kim. (2017).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in Daily Stress on Depression : Difference of Married Working Women's Academic Background. *The Women's Studies*, 92(1), 85-111.
- [14] C. D. Gjesfjeld, C. G. Greeno & K. H. Kim. (2010).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34(3), 135-143.
- [15] O. S. Cho. (2016). *The Influences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f Married Women in Employment on Depress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Modifying Effects of Economic Car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 [16] S. McLanahan & J. Adams.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 [17] M. J. Chung, Y. J. Chun, S. J. Kim & S. B. Jeong. (2010). Conflictual Issues in Marital Conversation, Patterns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Dyadic Perspective-taking among the Korean Couples with Minor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305-1324.
DOI : 10.15703/kjc.11.3.201009.1305
- [18] I. J. Lee & M. Y. Kim.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Conflict in Dual Earner Couple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3), 127-149.
DOI : 10.16999/kasws.2014.45.3.127
- [19] K. A. Park & H. S. Jeong. (2011). The Effect of Marital Intimacy and Commun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 Journal of Child Welfare*, 9(2), 59-84.
- [20] S. J. Kim & S. Y. Kim.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76-187.
- [21] S. H. S. Kim. (2010). Relationships Among Couple-Conflict, Forgiveness, Depression, and Anxiety :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55-66.
- [22] M. R.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669-682.
- [23] Y. M. Park & C. S. Shin. (2015). Effects of Menopausal Women's Lif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59-84.
- [24] K. Y. Kim.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ived Caregiving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2(2), 113-131.
- [25] J. E. Heo & Y. S. Tae. (2014). Influence of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2), 181-190.
DOI : 10.7475/kjan.2014.26.2.181
- [26] E. J. Kim, K. J. Oh & E. H. Ha. (1999). The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on Depression : Focused on Lif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4(1), 1-14.
- [27] H. S. Kim. (2016). The Relationships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s Mother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3), 17-28.
- [28] O. R. Ha & J. H. Kwon. (2006). Mental health and

- Rol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ole Conflict, Perfectionism, and Family/Spouse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75-696.
- [29] J. S. Lee & W. S. Choi. (2011). A Study on Path of Depression of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4), 389-412. DOI: 10.16999/kasws.2011.42.4.389
- [30] H. S. Lee. (2017).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s Mother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3), 17-28.
- [31] J. B. Lee. (2018). *The Effect of Burden of Support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the Adjustment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 [32] D. J. Kim, H. J. Jeon & E. K. Goh.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9(3), 27-50. DOI: 10.21197/JCEI.9.3.2
- [33] M. R.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669-682.
- [34] D. M. Kim.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Full Housewives, *Korean Education Inquiry*, 32(2), 113-131.
- [35] K. M. Lee, Y. K. Choi, L. H. Kang & M. S. Lee.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of the Married Women : Focused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cop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3(2), 229-236.
- [36] I. S. Kim. (1995). A Study on the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Women Received Public Assistance Classified by Family Structure, *Research Journal*, 2, 229-248.
- [37] J. Mirowsky & C. E. Ross.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3), 187-205.
- [38] J. Y. Kim & H. S. Kim. (2003).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of Korean Elderly Women,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3), 51-65.
- [39] J. Y. Kim & S. W. Lee. (2005). The Injury and Effect of Battered Women, *Yonsei Medical Journal*, 28, 127-150.
- [40] J. S. Lim., H. J. Lee. & A. R. Cho. (2008).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the Self-Employed: Focused on the Small Scale Self-Employed of Sungnam-City, *Family and Culture*, 20(3), 1-27. DOI: 10.21478/family.20.3.200809.001
- [41] H. M. Choi, M. K. Goh. & M. S. Yoon. (2013). The Impact Factor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Social Science Research*, 29(3), 119-142.
- [42] B. E. Carlson, L. McNutt, D. Y. Choi & I. M. Rose. (2002). Intimate Partner Abuse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Other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8(6), 720-245.

이재봉(Jae-Bong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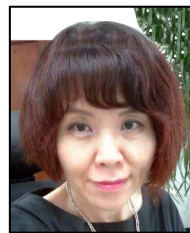


- 1997년 2월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9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보건, 복지
- E-Mail : skhu2007@hanmail.net

백진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복지
- E-Mail : jpaik1@hanafos.com